

구조주의 틀로 분석한 현대소비사회

앙리 르페브르 지음 「현대세계의 일상성」

우리네 젊은 독자에게 마르크스라는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80년대 후반 사회 분위기는 급격히 변화했고, 이 과정에서 과거에 금기로만 여겨졌던 진보이론이 수용되었다. 또 젊은 독자들의 진지한 책읽기는 서구이론의 단순한 수용보다는 비판적 안목도 제시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공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책읽기도 그 나름대로 편협한 측면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어떤 함목적성을 띠고 책을 읽는다는 것은 어차피 교조적 입장을 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론은 그 현실과 거리를 두고 말할 수 없다. 이론은 현실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고 다시 현실 속에서 그 이론의 타당성이 검증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할 물음은 매우 간단하다. 도대체 우리가 살면서 체감하는 현실은 무엇일까? 그중에서도 평범한 우리들이 매일 경험하는 일상세계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일상성이 마땅히 물어져야 할 철학적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철학은 이 일상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을까? 앙리 르페브르는 결코 친숙하지 못하지만 명쾌한 어조로 대답한다. 과거 철학은 당위의 세계에만 귀 기울였다. 그 때문에 헤라클레이토스로부터 시작되는 현상계의 변화상은 결코 철학의 대상으로 여겨질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일상성의 철학은 이런 점에서 커다란 관점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전회없는 왜 일상성이 탐구되어야 하고, 그러한 탐구결과를 수용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르페브르의 「현대세계의 일상성」(세계일보출판부)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러한 일상성으로의 전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에 따르면 마르크스 철학이 갖는 가장 큰 결과는 바로 철학이 바로 그 눈을 우리가 보고 듣는 일상성의 세계로 돌리게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르페브르의 철학은 여기가 종착역일 수 없다.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발견한 일상성 속의 소외란 특정지역, 곧 공장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60년대 프랑스 구조주의의 주된 용어법을 차용하면서 우리의 일상주변에서 발생하는 광고의 미학, 성의식, 언어의식 등 다양한 현상을 그 나름의 독특한 필치로 서술해 주고 있다. 이러한 독창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다방면의 영역들, 예를 들면 표현미술의 등장, 새로운 작곡기법의 등장 등에 대해 지금까지 판이하게 다른 해석을 가한다.

읽으면 읽을수록 많은 이야기가 가능한 책이다. 그리고 명심해야 될 일은 결코 쉽게 돌파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직까지 낯설은 구조주의이론의 이해와 진보이론의 비판적 안목을 읽어 낼 줄 아는 진지함과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태문

서울시 구로구 구로4동 766-56

「W이론을 만들자」

우리 실정에 맞는 이론처럼 멋진 이론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론이 자칫하면 범할 수도 있는 실천적 공백을 훌륭히 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매력 때문인지 우리 풍토에 맞는 이론구성의 당위성은 별 물음없이 멋진 호소력을 갖는다.

‘한국형 기술 및 한국형 산업문화’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할 것을 논변한 「W이론을 만들자」(지식산업사)라는 저서의 저자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현재 우리 경제가 겪는 어려움과 세계 선진국의 보호주의정책으로 받는 기술이전의 어려움이 감안되어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려는 시도의 중요성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더군다나 우수한 두뇌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창조를 해야만 하는 기술진과 그 노력결과 상품으로 소비자의 구미를 당기게 하는 경영까지 총 망라해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것을 만들자는 저자의 호소는 분명 주의깊게 경청해야 할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많은 사례를 접하게 되고 그때마다 저자의 논의를 뒷받침 해주는 여러 주장들을 만나게 된다. 특히 산학협조없이 어떤 훌륭한 작품이 만들어질 수 없음을 읽는 독자 누구나 호감갖게 된다. 더군다나 저자의 자신감있는 태도, 어느 곳을 가나 힘을 불어넣어 주는 사례는 그만큼 저자의 열정이 뜨겁고 진실됨을 반영해주고 있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으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점들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저자가 스스로 지적하고 있듯 ‘W이론’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저자의 당위론적 외침에 공감하긴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저자 나름의 생각이 어떻게 다

른 공유자들의 생각과 활발하게 교류 할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하다.

두번째로 언급되어야 할 점은 정치와 경제에 대한 저자의 피상적인 이해이다. 비록 저자가 그 전공분야에 박식한 지식을 소유했다 해도, 이러한 지식의 소유가 곧 사회적 물음을 풀 수 있는 만병통치약일 수 없다. 예컨대 아무리 산학협동을 통한 부의 증가가 이루어져도, 그 사회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의 불평등 현상은 다룰 수 없다. 이러한 불평등의 시정은 오직 정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W이론’의 실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지닐 것이다. 이러한 복잡성에 대한 인식과 그 해결의 실마리는 학문전반에 걸쳐 찾아져야 할 것이다.

나주용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2동 580번지

「나는 소망한다…」

소설에서는 제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한다. 양귀자의 장편소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살림)이란 소설 역시 그 제목에서부터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끄는 구석이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라면서도 이루지 못하는 술한 꿈과 갈망이 아주 절절한 목소리로 대변되는 한 구절이기 때문이다.

이 제목은 뽐 엘리아르의 시 「커브」의 전문이라고 하는데 저자는 이 간결한 한 편의 시를 아주 적절하게 응용한 듯싶다.

소설의 주인공 강민주는 우리 사회에서 남성들이 금기시하는 여성의 모습이다. 그러나 남성들의 술한 폭력 앞에 당당하게 맞서고 싶어하는 많은 여성들이 원하는 모습이다.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은 물리적인 것을 비롯하여 언어와 정신적인 것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가 있고 여성들은 폭력적인 남성앞에 꽃꽂하게 머릿고 강한 모습으로 대항하고 싶어한다.

강민주는 정상적인 여자의 모습은 아니다. 저자가 서문에서 미리 말해 두었듯이 이 소설에서 리얼리즘의 시선을 유포하고 만든 테러리스트이다. 강민주는 사회가 여성들에게 금지하는 강한 자의식과 공격성으로 무장하고 있다.

강민주는 피해를 입고 살아가는 여성들에

대한 강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인기배우 백승하를 납치한다. 백승하는 성공적인 배우로서의 경력과 모범적인 가정생활로 많은 여성의 꿈이 되는 남성상이며 동시에 여성들의 의식을 마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여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당대 최고의 인기배우 백승하 사건은 국민들의 시선을 강하게 집중시킬 수 있었다.

백승하는 납치되어 있는 동안 강민주와의 대화를 통해 여성들의 고뇌를 조금씩 이해해 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의 내부에 있는 인간 본연의 선량함과 너그러움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밀착된 인간관계를 통해 나타나고 저자는 여기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간다

남과 여라는 압축된 대결상황에서 점차 인간적인 교류를 형성하고 연극이라는 한편의 예술작업을 통해 가르침과 배움, 공동의 노동이라는 강한 유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분명 남성과 여성은 사회에서 대립되는 집단이 아니다. 상호협력과 애정의 끈을 통해 사회는 유지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남성들이 자신의 우월을 과시하고자 하는 술한 폭력앞에 여자는 피해자이고 그에 따른 피해의식은 남자들에게 대한 분노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강민주는 자기의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하지는 못했다. 그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강민주의 시도로 인해 그녀가 의도했던 일은 한발짝 전진한 것이다.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안고 살아가는 모순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느끼게해준 것은 중요한 일이다.

작품의 이러한 뚜렷한 주제의식은 생소한 인물 설정과 낯설은 사건의 전개가 갖는 어색함을 소설 중반부부터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준다.

목적의식이 뚜렷한 삶에서 볼 수 있는 처절한 아름다움, 강하고 저돌적인 여자의 흔들림 없는 인생관이 강민주를 사랑스럽게 만들어준다. 그녀의 죽음에 안타까움이 없음은 그녀의 삶에 주저나 머뭇거림이 없기 때문이다.

강민주의 존재와 사라짐은 많은 여성들에게 조그마한 불꽃이고 그 여운인 것이다.

이미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청도 APT 1동 502호